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식생활 실태와 남한에서 인식한 차이*

박영숙[†] ·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김대년**** · 최연실***** · 석드보라*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가족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상명대학교 아동복지학과*****

Dietary Living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Defectors

Young-Sook Park,[†] Kee Choon Rhee,* Ki Young Lee,* Eun Young Rhee,**
Soon Hyung Yi,*** Dae Nyun Kim,**** Youn Shil Choi,***** Deborah Seok*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Department of Consumer Studies and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Col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Studies and Housing,**** Seowon University, Cheongju, Korea
Department of Family and Child Welfare,***** Sangmyong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We performed a study to understand the dietary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wo hundred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North since 1990 participated in this survey.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December, 1997 to February, 1998 by mailing pre-tested questionnaires, which had been confirmed by 10 previous interviewers. The final data from 157 defectors(107 male and 33 female with 17 unidentified gender) were analyzed. We found that (1) North Koreans are lower in height, weight and BMI than South Koreans, (2) The North Korean diet is very simple and monotonous. It is limited to their local and unprocessed foods and dishes, which is far from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readiness. (3) On the other hand, in the North, the government control on foods diminished because food shortage leads to free market activity where housewives manage their own foodservices, and to accelate their eating-out behaviors. (4) Profound differenc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dietary life are noticed by the defectors as English words and Korean words. Efforts to understand and learn about each other is necessary before not too lat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4(1) : 64~73, 1999)

KEY WORDS : North Korean · dietary living · difference · English words.

서론

한반도 안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 체제를 형성한 남한과 북한은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분단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질화가 점점 가속되어 왔다. 이질화의 현상은 사회 전반적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나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 지원으로 이루어짐.

[†]Corresponding author : Young-Sook Park,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P.O.Box #97, Chungnam 336-600, Korea
Tel : 0418) 530-1260, Fax : 0418) 530-1264
E-mail : parkys@asan.sch.ac.kr

타날 수 있는데,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가정생활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생활문화는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영역이라 하겠다. 남북한 사회는 차별화된 이념적 토대에 바탕을 두고, 적대적 공존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지난 몇 십년동안 축적된 이질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화된 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동안에 남북한 사회의 성원들은 각각 다른 생활양식을 굳혀 왔으며, 이는 개인의 의식과 행태에 반영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생활문화 영역은 이처럼 이질화 현상을 구체적이

고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전통적인 요소에 기반한 동질성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통일이 후 문화통합의 발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장 구체적인 생활문화에서부터 접근하여 후일의 민족 동질성 회복과 민족 화합의 전망에 중요한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정책으로 1957년부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게 식량배급제를 실시하였고 협동농장원들은 농장의 연말결산시 1년분의 식량을 현물로 분배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여 1982년에 쌀은 공산주의라고 선언하였고 1986년부터는 의식주란 보편적 용어를 식의주로 바꾸어 사용할 정도이며 1990년 이후 곡물 생산량의 계속적 감소로 인해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내외 통신사 1994). 최근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피해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단위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3국이나 중국의 국경지대에서 실종되는 위험도 불사하면서 탈북을 감행할만큼 식량사정의 어려움이 극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 대부분은 최근 수년간 분량을 늘리기 위해 주로 죽을 끓여 먹고 있으며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부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고 평양의 다른 지역의 어린이들은 등근 얼굴, 볼록 나온 배, 휘어진 다리, 버짐이 핀 얼굴, 까칠까칠한 피부, 심하게 터진 손, 윤기없는 머리카락 등의 영양부족 증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였다(박영숙 등 1997).

남북기본 합의서가 1992년 2월 발효된 이후 남북 통일외 기대가 고조되고 각 분야에서 북한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 식생활 분야에서도 본 연구자들이 탈북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문제를 연구 보고한 바 있다(박영숙 등 1997; 이기춘 등 1997). 이 보고들은 현실적으로 북한에서의 현장 조사는 불가능하므로 탈북자 10여명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건강과 영양 실태를 탐색한 연구였다. 그이후 몇몇 연구자들도 북한지역의 영양과 관련하여 보고하였다(손숙미 1997; 조여원 등 1997; Katona-Apte & Mokdad 1998). 본 연구자들은 이에 진일보하여 북한에서 생활했던 조사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자들은 200명의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북한생활을 체험했던 국내에 거

주하는 탈북자 집단이었다. 조사대상자 특성의 고른 분포를 위해서 연령과 직업, 교육수준, 탈북전 거주지 등을 고려하였으며, 자료의 참신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1990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을 선정하였다. 이들의 선정과 접촉에는 이들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얻었다.

2. 측정도구

연구의 측정도구는 전년도 면접을 통한 심층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던 점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북한의 식생활문화를 측정하는 질문들로서, 북한문화의 다양한 접근을 위한 개방형 질문들과 폐쇄형 질문들을 혼합하였다. 또한 조사 영역은 북한의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의식주 생활과 아동양육, 소비생활, 생활시간, 가족관계 등의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식생활 영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수행되었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설문지 문항 작성 및 문항 양호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1997년 12월 탈북자 10명을 선정하여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실시하고 직접 면담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확립하였다.

본 조사는 탈북자들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담당자를 접촉하여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협조를 부탁하였다. 다음 단계로 이 담당자를 통해서 탈북자들에게 설문지와 회신용 봉투를 함께 발송하고, 그 후 응답자들이 회신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200명의 탈북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163부였으며, 일부 내용에 관해 전화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자료로 분석하기에 미흡한 일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자료로 사용한 설문지는 157부(남자 107명과 여자 33명, 성별 미확인된 17명)이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본 연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와의 접촉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부 미비한 항목을 전화로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며 그 결과로 항목별 응답수가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 점이 자료수집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t-test와 chi-square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PC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탈북연도는 1995년 이후가 반수에 달하여 비교적 최근에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평균연령은 38세이며 그 분포는 30세미만이 22.6%, 30대가 41.4%, 40대가 19.5%이고 분단이전 세대인 50대가 16.5%이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약 7 : 3이며, 탈북전의 직업은 사무원 등의 인텔리 전문직이 가장 많았고(31.0%) 그 다음이 노동계층(23.3%), 군인이나 당간부, 외화벌이꾼 등의 상류계층(19.4%), 학생과 유학생(6.2%), 주부와 무직자(6.2%), 개인농민과 자영업, 운전기사 등의 고소득층(5.4%)의 순으로서 북한 거주 당시 상층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교육수준은 절반이상(50%)이 대학 졸업이상으로서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탈북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통계청 1996). 월평균 가계소득과 월평균 가계지출은 높은 수준이었으며¹⁾ 조사대상자들의 거의 절반이 노동당원이었다. 앞에서 그들의 직업 수준과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과 관련시켜 볼 때 북한사회에서는 상당히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전 가족원수는 3~4명이 가장 많고 평균 4.19명이었다. 탈북전 가족유형은 핵가족이나 부부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인 것 같다(장하진 1996). 탈북전 거주지는 도시 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많았으며 탈북시 가족을 동반한 경우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비율이나 동반한 쪽이 약간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나 가계수입, 지출, 가족수, 장마당에서의 구매빈도, 등은 서로간에 유의적인 상관관이 없었으며 다만 가계수입과 지출만이 서로 유의적 상관을 나타냈다($r=0.639$, $p<0.01$).

2. 신체계측치

장기간의 극심한 식량부족은 주민들의 성장과 발달 등 신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탈북자들의 신장과 체중, 비만도(BMI)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식생활을 추측해 볼 수 있다. Table 2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신장은 남자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	N	%
- Age		
29yr ≥	30	22.6
30 - 39yr	55	41.4
40 - 49yr	26	19.5
50yr ≤	22	16.5
- Gender		
Male	107	76.4
Female	33	23.6
- Run-out year		
94 ≥	74	48.4
95 - 96	38	24.6
97 ≤	41	26.8
- Escaped with family		
Yes	63	52.9
No	56	47.1
- Living area in the North		
Urban	114	75.5
Rural	37	24.5
- Occupation in the North		
Blue-worker	30	23.3
White-worker	40	31.0
Student	8	6.2
Farmer, driver, merchant	7	5.4
Special job ¹⁾	25	19.4
Housewife, unemployed	8	6.2
Etc.	7	5.4
- Education level		
Middle-school	6	4.5
High-school	23	17.3
Junior college	29	21.8
College and higher	75	56.4
- Monthly family income		
99 won ≥	28	22.0
100 - 199 won	39	30.7
200 - 299 won	27	21.3
300 - 499 won	11	8.7
500 won ≤	22	17.3

Total subjects were 157, but subtotal of each item was less due to missing answers

여자가 각각 168.5cm와 157.7cm로서, 한국성인의 체중기준치(한국인영양권장량 1995, 20~49세 남녀 각각 172~170cm와 160~158cm)와 비교하면 다소 작은 편이다. 체중의 경우 북한에서의 체중은 남자가 각각 61.4kg과 50.7kg이었고 현재의 체중은 각각 65.2kg과 55.6kg으로 나타나서, 남한에 온 이후 남녀 각각 3.8kg과 4.9kg씩 체중이 증가하였다. 한국성인의 체중기준치(한국인영양권장량 1995)와 비교하면(20~49세 남녀 각각 66~67kg과 53~55kg), 조사대상자들의 북한에서의 체중은 남녀 모두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5.6~4.3kg) 현재의 체중은 남녀 모두 별로 차이가 없었다. 북한주민 중에서도 특히 성인 여성의 건강과 식품섭취 수준이 우려된다고 지적된 바 있는데(박영숙

1) 1992년을 기준으로 한 주요 직종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당·정기관의 부장급이 300~350원 정도이고(내외통신사 1994 : 103), 부부장급의 월 기본생활비가 216.40원 정도이다(서동익 1995 : 279).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주로 9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므로 북한사회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의 소득과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Height, weight and BMI of the subjects

Item	Male	Female
- Height(cm)***	168.5±5.5	157.7±4.6
- Weight(kg)		
Before escape***	61.4±9.1	50.7±5.8
Present***	65.2±8.9	55.6±7.9
- BMI		
North***	21.7±2.5	20.5±2.4
Present	23.0±2.6	22.3±2.7

Mean±SD, *** : p<0.001

등 1997), 남한에 와서 성인 여자의 체중이 남자보다 더 많이 증가하여 북한에서의 경향을 만회하는 것 같다.

한편 북한에서의 BMI는 남녀 각각 21.66과 20.52이었고 현재의 BMI는 각각 23.01과 22.29로 나타나서, BMI는 남한에 온 이후 남녀 모두 각각 1.37과 1.77씩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에서는 여자의 BMI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현재는 남녀간에 유의차가 없는 비슷한 비만도를 나타내서, 앞에서 지적한 북한 성인 여성의 영양 문제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남한의 성인 남녀 비만도에 비하면(보건복지부 1997), 북한에서의 비만도는 상당히 낮았으나 현재는 남한주민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북한주민들의 신체지수가 해마다 더 악화되고 있는지, 도시와 농촌에 따른 지역차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조사대상자중 남자들의 신체계측치를 연령별과 탈북연도별, 살았던 지역별로 비교하여 Table 3을 얻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신장은 연령이나 탈북연도, 도농출신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20대보다 40대가 2.5cm 컸고 도시출신이 농촌 출신보다 다소 컸다. 지금의 20대가 1980년 이후 북한 식량이 악화될 시기에 어린이였던 점과 관련하여 성장기에 충분히 잘 먹지 못해서 평균신장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통일이후 상당한 휴유증이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에서의 체중과 BMI를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 체중과 BMI도 점차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다만 50대이후의 남자들은 체중과 BMI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0.05). 이는 북한의 식량 배급제가 노약자나 폰트(TO)가 없는 직업의 경우 식량을 적게 배급하는 점과 관련되지 않을까 해석된다. 또한 체중과 BMI도 역시 농촌지역 출신이 도시지역 출신보다 다소 가벼웠으며 탈북연도에 따라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신장이나 체중, 비만도는 교육수준이나 가계수입, 가족수, 장마당에서의 구매빈도 등과 유의적인 상관성이 없었다.

세계식량계획(WFP, UN)이 1997년에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7세이하의 어린이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북한지역의 영양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Katona-Apte & Mokdad 1998). 이

Table 3. Height, weight and BMI of the male subjects by age, escape year from the North and living area in the North

Item	Height(cm)	Weight(kg) ¹⁾	BMI
- Age			
29yr≥(N=21)	167.0±7.0	59.0±9.1	21.1±2.0
30 - 39yr(N=47)	168.5±5.7	62.6±9.3	22.0±2.6
40 - 49yr(N=20)	169.5±3.7	63.4±9.2	22.5±2.6
50yr≤(N=13)	168.6±3.3	55.4±6.4	19.5±2.1
p	0.554	0.041	0.007
- Escape year			
94≥(N=58)	168.8±5.4	62.4±9.7	21.8±2.8
95 - 96(N=27)	167.3±6.0	60.3±7.4	21.6±1.9
97≤(N=20)	169.3±5.0	60.0±9.3	21.2±2.5
p	0.439	0.467	0.627
- Living area			
Urban(N=76)	169.1±5.7	62.0±8.5	21.7±2.3
Rural(N=26)	166.9±4.6	58.5±7.5	21.2±2.2
p	0.079	0.068	0.411

Mean±SD, p by t-test

1) Weight before escape from the North

조사 보고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들의 체중/신장, 신장/연령 등은 국제기준치에 크게 미달되었으며 심한 영양불량 상태의 어린이들은 건강한 어린이들보다 부/모 사망, 어머니 이외의 사람이 돌봄, 부/모의 질병상태, 동거살이(셋방) 등이 유의적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3. 섭취식품의 종류

십여명의 면접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북한주민들은 주식은 물론 부식도 매우 부족하고 과일은 들어만 본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이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북한에서 섭취하였던 부식품으로는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채소류와 김치류, 간장/된장/염장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두부/계란, 물고기, 곡류(밀가루/옥수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일부는 육류/오리고기, 감자/고구마, 해조류를 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에서의 김치는 짠지와 같다(고추가루와 젓갈 안넣음)는 증언을 참고해 볼 때, 그들의 주된 부식은 채소류와 짠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먹어본 과일은 사과와 배가 단연 많았으며 그 다음은 복숭아와 살구이었다. 밖에 일부 귤, 토마토, 감 등으로 답하였다. 기타로는 '추리'로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살구와 흡사한 것으로서 남한에서는 생소한 과일이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사과, 배, 복숭아, 살구 등의 토속적 과일이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의 시장이 세계화된 식품 유용성과 함께 외국적(외국) 과일이나 수입과일로 범람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하겠다.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은 생존문제의 차원이므로 우리들이

Table 4. Variety of side-dishes, fruits and foreign foods in the North Korea

Item	N	%
- Side dish ¹⁾		
Vegetables	85	53.8
Kimchi	57	36.1
Salty soy paste, etc.	31	19.6
Beancurd, egg	20	12.7
Fishes	18	11.4
Grains(flour, corn)	16	10.1
Meat, duck	15	9.5
Potato, sweet-potato	12	7.6
Seaweeds	7	4.4
- Fruits ²⁾		
Apple	138	87.3
Pear	116	73.4
Peach	46	29.1
Apricot	23	14.6
Mandarine	11	7.0
Tomato	9	5.7
Percimmon	5	3.2
Grape	1	0.6
Others. ³⁾	16	29.1
- Foreign dishes/foods ¹⁾		
Chinese noodle, kyose	50	31.6
Processed food ⁴⁾	34	21.5
Japanese beer	18	11.4
Western dishes ⁵⁾	18	11.4
Chinese cookie	17	10.8
Japanese wudong, odeng	16	10.1
Bread, castella	15	9.5
Sweets, cookie	10	6.3
Others ⁶⁾	24	15.2
Never tried	62	39.2
- Vitamin/mineral supplement		
Never heard	16	10.2
Heard but not taken	47	29.9
Taken ordinarily	36	22.9
Taken when ill	30	19.1
Taken when pregnant	4	2.5
No response	24	15.3

Total subjects were 157, but subtotal of each item was less due to missing answers

1) Named 2 items 2) Named 3 items

3) Churie, banana, pear, watermelon, melon, plum

4) MSG, calpise, cans, yogurt, chocolate, ham, Chinese sausage, butter, cheese

5) Curry, spaghetti, sandwiches, pork-cutlet, beef-steak

6) Cola, cider, Chinese whisky, Kirin whisky, ramen, coffee

직면하고 있는 식(食)의 레저화나 세계화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이기춘 등 1999)에서 그들의 체격선호도가 우리들과 일부 유사한 경향도 나타난 바 있어, 폐쇄된 북한사회에서의 식생활의 개방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Table 4). 북한에서 외국음식이나 외국식품을 먹어보

았는지에 대해 전혀 없다는 조사대상자가 가장 많아(39.2%) 북한주민들의 다양하지 못한 식생활을 짐작케 하였다. 먹어본 외국음식으로는 중국음식, 서양음식, 일본음식의 순이었다(각각 31.6%, 11.4%, 10.1%). 중국음식으로 중국 국수와 짜장면, 교즈(교자, 만두) 등, 서양음식으로 마카로니와 카레, 스파게티, 샌드위치, 돈까스, 스테이크 등, 일본음식으로 오뎅과 우동 등을 지적하였다. 외국식품으로는 가공식품류가 가장 많았는데(21.5%), 예를 들면 맛내기(MSG)와 칼피스, 통조림, 버터, 치즈, 버터, 요구르트, 햄, 중국소세지, 초코렛 등이었다. 그 다음은 일본맥주가 차지하였고(11.4%), 중국월병(10.8%), 빵류와 전빵, 카스테라(9.5%), 당과류와 덴마크제과자(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술종류(酎주, 기린위스키)와 라면, 커피, 중국사이다 등이 언급되었다. 여기서 지적된 여러 외국음식이나 식품들은 이미 우리 식생활에서는 익숙한 것들이므로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엿볼 수 있으며, 기술한 외국음식이나 식품들도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것들이어서 그나마 접경한 중국과 다소 교류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주민들은 영양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으며 보신음식에 대한 탐욕도 거의 없다 하므로(박영숙 등 1997), 영양제 등도 섭취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Table 4), 40.1%는 영양제를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44.6%는 평소 영양보충용이나 질병시, 임신시에 먹었다고 응답하였다(각각 22.9%, 19.1%, 2.5%). 조사대상자들의 교육 정도와 소득이 상당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도 일부 상류층은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하는 반면, 많은 북한주민들은 식사도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서 영양소의 추가공급도 해본 적이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식생활의 개방정도가 미흡한 점은 반대로 우리 전통적 의례의 고수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친척간에 결혼식이나 장례, 환갑에 서로 돕지만 생일에는 돕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나서, 북한주민들의 특별한 날의 범주를 보여준다. 한편 제사를 지내는 비율은 예상외로 높았는데(77.2%), 초기에는 북한당국이 조상숭배를 금지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묵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사는 주로 2대(40.3%) 또는 3대(21.0%)까지 지낸다고 하였다.

4. 식생활관리 실태

1) 식생활관리자

조사대상자들의 북한에서의 생활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서울대생활과학연구소 1998). 북한주민들의 기상시각은 6시 이전(79.2%)으로 이른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하고, 취침시각은 평균 밤 10시 56분이며, 수면시간은 평

균 7시간 5분이다.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40분이상 일찍 일어나고(5시 29분), 20분이상 빨리 잠자리에 들며, 잠도 20분정도 적게 잔다(6시간 50분). 근무시간은 평균 9시간 54분으로서 성별간 차이는 없으며, 통근시간은 평균 41분으로 주로 걷는다. 특히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시간을 보면 식사시간은 하루에 55분으로 짧은 편이다.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로서 여자(3시간 37분)가 남자(1시간 26분)보다 집안일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며, 여자들은 음식준비(64분), 빨래(61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 남자들은 청소와 빨감준비(39분), 자녀돌보기(23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식사시간이 짧은 것은 북한주민들이 바쁜 일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식사가 본래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다. 연료 사정이 열악하여 석탄이나 구멍탄, 나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므로 빨감준비와 청소(재, 검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가정에서 구멍탄 찌기, 나무패기, 물걸기 등의 힘든 집안일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들은 가사활동 중에서 가족의 부양, 집안 수리, 연탄찌기 등은 남편의 일로, 자녀돌보기, 생활비 관리, 집안 청소, 취사와 조리,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기, 주민회의 참여 등은 부인의 일로, 자녀 공부돕기는 부부공동의 일로 인식하고 있어서, 식생활관련 가사는 주부 몫임을 드러내었다. 북한에서 생활비 관리를 안해(주부)가 담당하는 경우(39.9%)가 세대주(28.1%)나 시어머니(27.5%), 부부 공동관리(4.6%)의 경우에 비해 많아서, 이 또한 주부가 식생활관리 자임을 뒷받침 한다. 이렇게 북한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떠맡고 있는 실정은 '부역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선전과 동떨어진 것이라 하겠다.

2) 주방관리 측면

북한주민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살펴보면 그들의 생활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이 북한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주방용품은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품류(24.2%)와 전기밥가마(밥솥, 22.3%), 냉동기(냉장고, 15.3%) 등을 가장 갖고 싶어했으며 그밖에 석유콘로(큰 알콜버너와 유사함), 그릇류(스텡), 조리기기(알미늄), 식장(식기장)과 함께 수동소형분쇄기, 스키프판, 전기불고기판 등을 기술했었다. 이것들은 이미 남한가정에서는 필수품이 된 것으로서 앞으로 점차 북한에서 수요가 증가될 품목들이라 하겠다. 한편 북한에서 가장 갖고 싶었던 물건으로는 가전제품, 특히 TV(24.9%)와 함께 냉동기(냉장고를 말함, 11.4%)를 열망하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이기춘

Table 5. Behaviors related to kitchen utensils

Item	N	%
- Kitchen things wanted ¹⁾		
Foods	38	24.2
Electric rice cooker	35	22.3
Refrigerator	24	15.3
Dishware(stainless steel)	15	9.6
Petroleum burner	13	8.3
Cookware(coffee pot, aluminum)	10	6.4
Dish-chest	3	1.9
Others. ²⁾	16	10.2
None	10	6.4
- Favorite material for dishes		
Stainless-steel	32	20.4
Porcelain(including coated)	22	14.0
Plastics	15	9.6
Glass	10	6.4
Brass	7	4.5
Aluminium	5	3.2
None	5	3.2
No response	64	40.8
- Cleaning greasy wares ¹⁾		
Soap	103	65.6
Sand, coal-residue	66	42.0
Kitchen soap-formular ³⁾	13	8.3
Hot water	11	7.0
Paper	4	2.5
Rice-washed water	1	0.6
No specific cleaning	3	1.9

Total subjects were 157, but subtotal of each item was less due to missing answers

1) Named 2 items 2) Small grinder, electric broiler, etc.
3) Made in China

등 1998).

한편 그들이 좋아하는 식기의 재질은 스텡(스텐레스스틸)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기/범랑, 플라스틱, 유리, 놋기, 알미늄의 순이었다. 또한 주방용품의 관리에 있어서 기름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비누(덩어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65.5%) 모래나 석탄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하여(42.0%), 주방의 위생관리는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3) 식품구매 측면

북한에서 장마당(농민시장)을 통해 구입한 물품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식생활 단면을 짐작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북한에서 가게 생활비를 주로 식비에 사용하였고(92.9%), 장마당에서 구입한 물품도 주로 식료품으로서(84.2%) 식량, 쌀 등의 주식(40.5%)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

다(이기춘 등 1998). 쌀은 혼사시 금전이외에 부조로 사용될만큼 북한사회에서는 귀한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탈북자들이 장마당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지를 탈북연도별과 도농별, 소득별로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탈북연도가 95년이후의 탈북자들이 그 94년이전의 탈북자들보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서($p < 0.01$), 근년들어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의 이용빈도는 도시지역이 농촌지역에 비해 다소 잦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아니었으며, 소득별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장마당은 90년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북한 전역에는 300~350개의 농민시장이 거의 매일 운영되고 있으며(각 군에 1~2곳, 시마다 3~4곳) 이곳에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과 생필품의 60~70%가 거래되고 이들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조선일보 99. 1. 5).

5. 식생활의 외부화정도

북한은 여성을 사회생산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사노동 사회화 정책을 세우고, 가사노동을 대단위화시킨 집단화(공동화), 기계화 및 자동화시킨 상품화, 사회적 산업으로 끌어낸 서비스화의 3가지로 내세워왔다. 그러나 실제 북한 여성들은 전통적 방식대로 가사에 얽매어 지내고 있다(이기춘 등 1998).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가공식품이나 편의식품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실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품 공장으로는 장공장, 밥공장, 국수공장, 부식물공장, 당과류 공장이 지역별로

있으며 기타 육류 공장, 캔식품공장(멸치, 정어리, 고등어, 갈치 통조림), 조미료 공장, 각종 보약, 술공장이 있다고 하면서도, 일상 생활에서는 통조림을 보지 못했다고 탈북자들은 지적하였다.

북한에서는 주로 배급소에서 식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년에 들어 식품조달을 주로 장마당(농민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탈북자들에게 배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었던 가공식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라면이나 속성국수 등 인스턴트 국수(52.2%)와 건국수류(19.1%) 정도와 일부 빵, 장류, 곡류가루 등을 파는 정도라고 답하였다. 장마당에서의 가공식품은 배급소보다는 다소 다양하였는데, 두부(36.6%), 떡(23.6%), 국수류(17.8%), 빵(14.0%)을 비롯하여 기름튀기, 콩나물 등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한편 장마당에서 파는 음식류는 일종의 영업급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북한에서 근년에 이러한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거리음식으로는 육고기국밥과 두부밥, 완자밥, 두부쌈밥, 순대국밥 등의 밥류, 두부탕과 끓인 두부, 지짐, 명태자반 등의 반찬류, 순대와 찰떡, 파매기, 찢고구마, 찢계란 등의 간식류가 있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의 대표적 상징으로 장류의 상품화를 들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간장과 된장을 모두 배급받으며 고추장은 먹지 못한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였다(박영숙 등 1997). 남한에서는 해외여행시에도 고추장을 싸들고 다닐만큼 고추장이 식생활에서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식생활에서 특히 배치되는 바이므로 과연 북한에서 고추장없이 생활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거의 먹지않

Table 6. Frequency of food purchasing by escape year, living area and monthly family income in North Korea N(%)

Item	Everyday	2~3/wk	1/wk	1~2/month	Never	N.R.
- Escape year						
94 ≥ (N=74)	1(1.4)	12(16.7)	14(19.4)	29(40.3)	16(22.2)	2(1.4)
95 ≤ (N=79)	5(7.1)	23(32.9)	18(25.7)	12(17.1)	12(17.1)	9(7.1)
p				0.007		
- Living area						
Urban(N=114)	5(4.4)	29(25.4)	26(22.8)	27(23.7)	18(15.8)	9(7.9)
Rural(N= 37)	1(2.7)	5(13.5)	6(16.2)	12(32.4)	11(29.7)	2(5.4)
p				0.193		
- Monthly family income						
99 ≥ (N=28)	2(7.1)	6(21.4)	7(25.0)	6(21.4)	7(25.0)	0(0.0)
100 - 199(N=39)	1(2.6)	7(17.9)	4(11.8)	14(41.2)	8(23.5)	5(12.8)
200 - 299(N=27)	2(8.0)	6(21.4)	4(16.0)	9(36.0)	4(16.0)	2(7.4)
300 - 499(N=11)	0(0.0)	1(9.1)	3(27.3)	4(36.4)	3(27.3)	0(0.0)
500 ≤ (N=22)	1(4.5)	7(31.8)	4(18.2)	4(18.2)	6(27.3)	0(0.0)
p				0.882		
Total(N=157)	6(3.8)	35(22.3)	32(20.4)	41(26.1)	29(18.5)	16(8.9)

N.R. indicates no response, p : p value by χ^2 -test

Table 7. Availability of prepared foods and processed foods

Item	N	%
- Processed foods at distributing places		
Ramen, instant noodle	82	52.2
Dried noodles	30	19.1
Bread	8	5.1
Soy sause/paste, Hot paste	8	5.1
Flours(rice, wheat, corn)	6	3.8
Corn-rice	3	1.9
Can-foods	3	1.9
Prepared foods	3	1.9
Others.	4	2.5
None	30	19.1
N.R.	10	6.4
- Processed foods at private market ¹⁾		
Tofu	57	36.3
Ricecake	37	23.6
Noodle	28	17.8
Bread	22	14.0
Fried foods(fish, ramen)	11	7.0
Bean sprout	8	5.1
Alcoholic drinks	2	1.3
Mandu, sundae	3	1.9
Others.	47	29.9
None	28	17.8
- Hot-paste supply		
Home-made mostly	57	36.3
Purchased mostly	31	19.7
Home-made and purchased	25	15.9
Not used	27	17.2
N.R.	17	10.8
- Lunch for farther		
Lunch box	56	35.7
Coming home for lunch	47	29.9
Foodservice at worksite	16	10.2
Others.	4	2.5
N.R.	34	21.7

Total subjects were 157, but subtotal of each item was less due to missing answers

N.R. indicates no response 1) Named 2 items

거나 무응답은 28.0%에 그쳤고 집에서 닭귀먹었음, 사먹었음. 닭구거나 사먹었음의 순으로 답하여, 가공식품보다는 자가제조를 통해 비록 적은 양이나마 고추장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생활의 외부화에서 급식은 주요한 척도가 되는 직장급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세대주의 점심에 관해 질문하였다. 세대주들은 점심을 주로 벤또(북에서는 도시락을 일본말 그대로 벤또라고 사용함)로 해결하거나(35.7%) 집에서 먹고 가는 경우(29.9%)가 많았고 직장에서 급식받는 경

Table 8. Difference in dietary living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perceived by the subjects

Item	N	%
- Words hardly understood		
Names of western food and dish	77	48.7
Names of Korean food and dish	47	29.8
Living terms in English	8	5.1
Living terms in Korean	4	2.5
Others.(Japanese, etc.)	5	3.1
None	9	5.7
N.R.	8	6.1
-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¹⁾		
Etiquette, language	61	38.6
Kind, quality and variety of dish	24	15.2
Kind, quality and variety of food	10	6.3
Taste(hot, sweet), various cooking method	103	65.2
Culture of drinking	13	8.2
Leisure-oriented food life	55	34.8
Food size, number and waste	15	9.5
Service technique(scissor, hygiene)	8	5.1
Others.(delivery)	57	36.1

Total subjects were 157, but subtotal of each item was less due to missing answers

N.R. indicates no response 1) Named 3 items

우는 10.2%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큰 공장(1~2급)이나 기업소에서 대개 강냉이국수를 급식했으나 그 이후 식량사정 악화로 이나마의 급식도 쇠퇴되었다고 한다.

6 남북한 식생활의 차이

1) 탈북자가 지적한 남북한 식생활의 차이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와서 경험한 식생활의 차이는 생소한 언어로 언급된 바 있으므로 이에 관해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는 Table 8과 같았다. 조사대상자들이 지적한 이해 못한 말은 서양 식품명이나 음식명(48.7%)과 우리 식품명이나 음식명(29.8%)이 가장 많았는데, 예를 들면 햄버거나 카레, 피자, 돈까스, 샌드위치, 함박, 스테이크, 치킨 등과 빈대떡이나 삼겹살, 탕수육, 곰탕, 설렁탕, 떡볶이, 불닭, 육개장, 삼계탕, 사철탕, 찌개, 닭갈비 누룽지, 추어탕, 동치미, 양념류 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의 단순하고 제한적, 폐쇄적 식품 유용성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되며, 점차 남북한간에 우리말 소통이 더더욱 고 괴리가 심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밖에 셀프서비스나 뷔페, 룸살롱 등의 영어용어가 지적되었으며(5.1%) 없다 또는 무응답은 11.8%에 그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말을 다소 이해하지 못하였다.

또한 탈북자들에게 남한에서 느낀 북한과 다른 생활문화를 기술하도록 하여, 그 중에서 식생활면을 정리해 보면

(Table 8), 음식의 맛과 다양한 조리법(65.2%), 식사시의 예절이나 인사(38.6%), 분위기과 식의 레저화(34.8%)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식사시의 예절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접하지 않던 의식을 하면서 느낀 것이었으며, 식사시의 인사는 남한의 밥 먹었습니까와 북한의 드셨습니까, 잠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남한의 살찐다와 북한의 몸이 좋아졌다 등과 함께 남한에서는 식사를 다같이 끝내지만 북한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점 등을 언급하였다. 그밖에 요리의 종류와 질, 다양성(15.2%), 음식분량과 가짓수, 낭비(9.5%) 등이 남북한간에 서로 다른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특히 남한의 음식이 북한에 비해 달고 맵고 싱겁고 기름을 많이 쓰며 또 양념이 진하다고 하였다. 또 술문화가 서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는데(8.2%), 남한에서는 식후에 술을 마시고, 술잔을 비워 돌리고, 강하게 권하고, 잔에 가득 붓지 않는 반면 북한에서는 술을 잔에 넘치도록 부으며 크게 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식생활관련 용어의 차이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한은 서로 격리된 채 지내온 탓에 두 곳에서 사용되는 생활 용어가 상당히 상이하며 이는 통일이후의 부담이 되지않을지 염려되고 있다(이기춘 등 1998). 본 연구과정에 탈북자들이 사용한 식생활관련 용어 중에서 남한과 다른 것이나 잘 이해안된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식재료명을 북한말(남한말)로서
 - 포부탕국수 (스프없는 라면),
 - 낙지 (오징어),
 - 남새, 소채 (채소),
 - 남주, 빙마 (명태, 동태),
 - 농마 (감자녹말),
 - 느름 (돼지고기),
 - 단고기 (개고기),
 - 당가루 (사탕 과자),
 - 메살 (살코기),
 - 맛내기 (MSG),
 - 물고기, 해어 (생선),
 - 배금국수 (?),
 - 비계살 (비계살, 삼겹살),
 - 속성국수 (일종의 라면),
 - 압가루 (참쌀가루에 사탕가루를 섞은 것으로 압죽용),
 - 오징어 (낙지),
 - 추리 (살구유사한 과일),
 - 칼파스 (중국산소세지),
- 음식명을 보면
 - 가마치 (누룽지),
 - 곽밥 (포장도시락),
 - 교즈 (만두),
 - 까리떡 (연감자떡),
 - 밀가루뜰어국 (수제비),

- 배개빵 (?),
- 벤토 (도시락),
- 뽕로 (?),
- 상원제 (?),
- 생일떡뚜라 (생일케이크),
- 오그랭죽 (?),
- 온반 (국밥),
- 중국식까넨 (?),
- 중국식뎨신 (?),
- 칼제미국 (?),
- 홀레브(홀레블) (쫄면빵) 등이 있으며 그밖에,
- 르마 (칼로리),
- 밥가마운전 (술뚜정운전),
- 밥승 (밥뚜정),
- 의례원 (웨이트리스) 등의 말도 서로 다르다.

요약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사회는 아직까지 남한과 유사한 측면도 상당부분 남아 있지만, 상이하고 독특한 생활양식을 보임으로써 남한과 구별되는 식생활의 이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는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과는 다른 사회주의 이념체제에서 연유한 바 크지만, 근래에 와서 무엇보다도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경제상황의 악화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경제상황의 문제는 북한 생활문화가 지니고 있는 전통성을 해치고 근대적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의 신장과 체중, 비만도는 남한주민에 비해 상당히 저하된 수준이다. 특히 저하된 어린이들의 신체발육지수는 통일이후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주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매우 간단한 종류로서 토속적 식품이나 요리 위주이다. 의학발달에 의한 혜택이나 국제화에 따른 식생활 다양화와는 매우 거리가 멀며 생존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셋째, 식생활관리 측면에서 북한에서 주부들이 한국 전통 가정에서의 역할을 고스란히 지키고 있으며 노동강도와 먹거리를 감안하면 노동량이 과도한 정도이다. 국가식량배급소의 부실과 자유시장의 활성화로 주부의 자유업 종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미미하였던 식생활의부화를 다소 가속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남북한의 식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언어와 용어, 특히 영어로 된 것들이고 그 다음이 우리말로 된 식품이나 음식으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사회에 익숙해진 생활을 서로 이해하고 익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북한은 사회주의식 사고방식에서 연유한 오랜 통제와 더불어 북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극심한 물질의 결핍, 기본적 욕구 충족조차 어려운 낮은 생활수준에서 오는 물질에의 가치 부여가 강한 물질주의적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통일 독일에서 처음 얼마동안에는 백화점의 식료품이 동났으며 이는 주민들이 식료품을 쌓아두면서 일어난 결과였다. 반면 남한에서는 같은 물질주의 성향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소비를 추구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남북한이 이런 점에서 심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단초를 모색해 보려는 취지에서 남북한 이질화 현상의 양상을 주로 북한 사회의 식생활을 통해 경험적 조사분석으로 접근하였다. 다음 단계로 남북한 사회를 대비해 봄으로써 이질화를 명백히 하면서 동시에 유사점을 발견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의 식생활 문화, 나아가서 생활 문화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질적인 두 사회체제의 성공적인 통합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내외 통신사(1994) : 북한조강, pp17-22, 내외 통신사, 서울

박영숙 ·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김대년 · 최연실(1997) : 탈북자 면접을 통한 북한주민의 건강 및 식품섭취 실태 탐색. *지역사회영양학회지* 3(3) : 396-405

보건복지부(1997) : 9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보고서, 1997년 3월, 서울

손숙미(1997) : 북한의 공중보건상태.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4) : 467-469

서울대생활과학연구소(1998) : 탈북자를 통해 본 남북한의 가정생활 문화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1월, 서울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박영숙 · 김대년 · 최연실(1997) :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 - 북한가정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6) : 289-315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김대년 · 박영숙 · 최연실(1998) :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II) - 북한의 가족, 아동, 소비, 시간 생활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1) : 231-250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이순형 · 김대년 · 박영숙 · 최연실(1999) : 남북한 생활 문화의 이질화의 통합(III) - 북한의 의식주 생활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 : 10-20

조여원 · 홍주영 · 임정은(1997) : 탈북 귀순자들의 영양소 섭취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영양학회지* 2(4) : 470-476

장하진(1996) : 남북한의 가족제도 및 여성의 역할 -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서울

통계청(1996)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pp.174-286, 강문인회사, 서울

Katona-Apte J, Mokdad A(1998) : Malnutrition of childre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J Nutr* 128 : 1315-1319